



남해바래길

NAMHAE BARAEGIL

남해바래길



2020년 10월 12일 기준

* 바래길 노선 및 여행 정보는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수시로 조정 및 변경됩니다. 최신 정보는 남해바래길 앱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
053) 863-8778 www.baraeroad.or.kr

남해바래길 안전여행 가이드라인

- 1 안전을 고려하여 2인 이상 함께 걷습니다.
- 2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지 말며, 절벽 등으로의 오름은 피합니다.
- 3 하절기 오전 6시~오후 7시, 동절기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에 걷습니다.
- 4 식수와 비상식량 및 응급약품은 꼭 휴대합니다.
- 5 긴 바지를 착용하고, 상의도 가끔씩 걷기를 권장합니다.
- 6 차도 옆을 걸을 때는 길가에 붙어서 반드시 한 줄로 걸어갑니다.
- 7 미끄럽거나 거친 노선이 있으므로 등산이나 워킹용 스틱 지팡이를 권장합니다.
- 8 악천우에는 걷기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 9 남해바래길 앱과 홈페이지 정보 활용합니다.

안내체계 설명

— 붉은색 - 정방향 — 파란색 - 역방향
↑ 방향표식A ↑ 방향표식B | 리본 | 인식패널
↑ 방향표식A ↑ 방향표식B | 리본 | 인식패널
 * 리본과 인식패널은 정역방향 개념이 없습니다.

남해바래길 안내 (바래길 앱 활용을 권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범례

1 ~ 16 본선 시작점
 1 ~ 3 지선 시작점
 — 본선 코스
 - - - 지선 코스
 ● 지명 ● 관광지 ▲ 산
 ★ 아주 쉬워요
 ★★ 쉬워요
 ★★★ 무난해요
 ★★★★ 조금 힘들어요
 ★★★★★ 많이 힘들어요

정말이길, 강릉바래길 231km

500년 전부터 '꽃밭(花田)'이란 별칭으로 불렸던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는 산과 바다, 다랭이논, 죽방림, 그리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이다.

남해바래길은 남해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을 두 발로 걸어서 완벽하게 만날 수 있는 걷기여행길이다.

개통 10주년을 맞아 2020년 새롭게 리모델링 된 '남해바래길2.0'은 총 231km로 본선 16개 코스와 지선 3개 코스로 구성되었다.

본선 코스는 섬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중주길로 11개 코스가 남해안 전체를 잇는 '남파랑길 90개 코스 중 36~46코스'와 노선이 일치된다. 지선 코스는 코스별로 원점회귀가 가능한 단거리 순환형 걷기여행길로 자가용 이용이 편하게 구성되었다.

'바래'라는 말은 남해 어머니들이 가족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파래나 조개, 미역, 고등 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토속어이다.

<남해바래길> 새로운 심볼은 예로부터 굿이 많아 '화전(花田)'으로 불렸던 남해군의 별칭을 모티브 삼아 남해군화인 지자를 전체 틀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다랭이논 사이로 보이는 바다 건너 육지, 떠오르는 태양 등을 조개 틀 안에 담아 굿이 어린 '바래'를 원시점.

코스명	총거리	걸는 시간	난이도
01 바래오시다길	12.2km	4h 00m	★
02 비자림해풍길	9.3km	3h 30m	★
03 동대만길	15.0km	5h 30m	★★★★
04 고사리밭길	15.0km	6h 30m	★★★★★
05 말발굽길	12.0km	4h 30m	★★★★
06 죽방말치길	9.9km	4h 00m	★★
07 화전별곡길	17.0km	6h 30m	★★★★
08 섬노래길	13.8km	6h 30m	★★★★★
09 구운몽길	15.4km	6h 00m	★★★★
10 영광다숲길	17.7km	7h 00m	★★★★
11 다랭이저녁길	13.5km	5h 30m	★★★★
12 임진성길	13.9km	5h 30m	★★★★★
13 바다노을길	12.6km	5h 00m	★★
14 이순신호국길	16.6km	6h 00m	★★★★
15 구두산목장길	6.6km	3h 00m	★★★★★
16 대국산성길	15.9km	7h 00m	★★★★★
01 음내바래길	10.0km	3h 30m	★★
02 노랑바래길	3.2km	1h 30m	★★★★
03 금산바래길	2.0km	1h 30m	★★★★

지선 01 음내바래길

총거리: 10.0km
걸는 시간: 3시간 30분 내외
난이도: ★★

남해바래길은 남해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을 두 발로 걸어서 완벽하게 만날 수 있는 걷기여행길이다.

개통 10주년을 맞아 2020년 새롭게 리모델링 된 '남해바래길2.0'은 총 231km로 본선 16개 코스와 지선 3개 코스로 구성되었다.

본선 코스는 섬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중주길로 11개 코스가 남해안 전체를 잇는 '남파랑길 90개 코스 중 36~46코스'와 노선이 일치된다. 지선 코스는 코스별로 원점회귀가 가능한 단거리 순환형 걷기여행길로 자가용 이용이 편하게 구성되었다.

'바래'라는 말은 남해 어머니들이 가족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파래나 조개, 미역, 고등 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토속어이다.

음내바래길은 남해공용터미널을 시작으로 남해항교를 지나 남해성당을 거쳐 봉황산 나래숲공원을 지나다. 백로가 많이 이를 지어낸 학림사를 지나 봉황산 숲길을 지나면 남해를 최고의 경관으로 불리는 아산저수지 독길을 걷는다.

지선 02 노랑바래길

총거리: 3.2km
걸는 시간: 1시간 30분 내외
난이도: ★★

오동리다랭이논 길을 지나 마을길을 지나면 읍민들의 삶터 남산공원을 지나 유배문화관에 다다른다. 이후 청년창업거리와 남해아시장을 지나 다시 시작점 남해공용터미널로 돌아온다.

노랑바래길은 노랑 유람선선착장 앞을 출발해 이순신장군의 가요가 있었던 총렬사 시장 앞을 지난다. 이후 노랑마을길을 지나 노랑대교가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노랑공원에 닿는다. 노랑공원에서 다리심을 잠시 한 후 길을 건너 산성산탐방로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편백숲길을 만난다. 레인보우 전망대에서 남해대교와 노랑대교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다.

지선 03 금산바래길

총거리: 2.0km
걸는 시간: 1시간 30분 내외
난이도: ★★

금산바래길은 남해 금산의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하는 절경 포인트를 잇는 코스다. 금산성 직전의 제석봉에 올라서 바라보는 금산산정이 아름다우니 들었다 가보자. 특히 성사바위에서 보는 보리암과 남해바다는 금산의 진수라 할 만하다.

*금산바래길은 원래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국립공원 운영방침에 따라 남해바래길 안내사가 없습니다. 남해바래길 전동 앱을 이용해서 길찾기와 완보인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남파랑길

